

01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사회연대경제 사업 모니터링

지난 10월, 김홍탁 광고 전문가, 박상호 유통 전문가, 이호용 농업 전문가가 캠프의 사회연대경제 사업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리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본 모니터링은 코로나19 이후 딸락, 마닐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 사업의 전 과정을 확인하고,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3인의 전문가는 각 사업장 답사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 사업의 핵심인 생산-가공-유통에 활용할 수 있는 제안을 전달하였습니다. 캠프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더욱 견고한 사업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02



아시아기독교생명농업포럼 발표

지난 11월 캠프는 필리핀 국립대학교(University of the Philippines)에서 진행된 '아시아기독교생명농업포럼'에 참가했습니다. 아시아기독교생명농업포럼은 한국, 필리핀, 인도 등 아시아 9개국의 농업활동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농업 사례를 공유하는 행사입니다.

캠프는 본 행사에서 필리핀 딸락(Tarlac)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업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한국 참가자들과 함께 필리핀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마못(Maamot) 지역에서 농민들이 계단식 논이라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우렁이 농법을 전수 받고 투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03



사빵꾸란 꿈 도서관

사빵꾸란 꿈 도서관은, 캠프의 딸락 지속가능발전센터가 위치한 '사빵꾸란' 지역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고자 시작했습니다. 월드프렌즈 NGO봉사단원으로 활동한 류혜원, 조혜수 단원이 프로그램 기획부터 도서관 소개 자료 제작, 아동 모집 및 부모님 면담 등 전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사빵꾸란 지역에는 학교를 제외한 교육 시설의 부재로, 아이들이 도서 및 시청각 자료를 접할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빵꾸란 꿈 도서관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놀이터이자 학습공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사빵꾸란 꿈 도서관에서 영단어 학습, 체육활동, 나만의 책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만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사빵꾸란 꿈 도서관에서 함께한 모든 순간이 아이들의 삶에 따뜻하고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길 소망합니다.

04



봉사단원 귀국 및 신규 단원 파견

지난 2022년 6월부터 파견되어 12월 21일까지 6개월간 캠프 필리핀 사업장에 파견된 류혜원, 박성연, 조혜수 월드프렌즈 NGO봉사단원들의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활동을 연장한 박성연 단원과 2022-2023 월드프렌즈코리아 KOICA-NGO봉사단 신규 단원인 박우진, 이승주, 조아영 단원이 캠프 필리핀 사업장에 파견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현장에서 주민들의 자립을 위해 힘써주었던 류혜원, 조혜수 단원의 앞날을 응원하며, 2023년에 새롭게 현지로 파견될 신규 단원 3인의 활동도 기대 부탁드립니다.

CAMP NEWSLETTER

캠프 뉴스레터
주인 주도, 자립의 길
2022 겨울호, December
Vol. 46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HDP Nexus) 기반 필리핀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 필리핀 전시 성폭력 피해자 인도적 지원활동에 기반한 여성-평화-안보 역량 강화사업 인터뷰

캠프 평화와개발센터는 (사)아시아인마을과 함께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통해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필리핀 전시 성폭력 피해자 인도적 지원활동에 기반한 여성-평화-안보 역량 강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사업은 필리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들과 가족들, 예비 평화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HDP Nexus(생존자 대상 인도적 지원(Humanitarian)-역사기록 수집을 통한 개발(Development)-평화 아카데미 개최를 통한 평화 활동가 양성(Peace)을 연계) 평화ODA 사업입니다

인도적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고 3~4대의 대가족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피해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식료품과 보건용품, 영양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90대 고령의 나이로 우울감과 기억력이 감퇴한 생존자들을 위해 활동사진을 담은 앨범과 옛 노래가 수록된 라디오 등 개인 맞춤형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역사기록물 수집은 흩어져 있던 필리핀 일본군'위안부'관련 자료들을 모으고 정리하여 필리핀 일본군'위안부'역사기록집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역사기록집은 피해 증언과 자작 시, 그리고 일본 정부 소송자료와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에 제출한 필리핀 기소장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평화 아카데미는 필리핀과 한국의 관련 단체와 예비 평화 활동가들에게 맞춤형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6가지 주제, 12회의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여 총 169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캠프 부설 평화와개발센터는 전시 성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모든 피해자들과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후원 계좌

KEB 하나은행
415 - 890009 - 19504
(사단법인 캠프)



캠프 후원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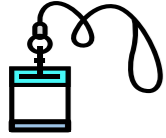
- www.icamp.asia
- campint@icamp.asia
- blog.naver.com/camplove11
- www.facebook.com/camp.asia
- @camp_int
- 유튜브 검색창 '사단법인 캠프' 검색
- 카카오톡 채널 카톡 검색창 '사단법인 캠프' 검색
- 캠프 게더타운 <https://url.kr/9lyca8>

- 캠프 본부(한국)**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9길 28-1 (당산동6가) 3층
Tel. 02-3147-0309, 0310 Fax. 02-3147-0308
- 캠프 아시아(필리핀)**
마닐라 : Unit 205, 2nd floor, 78-80 Polaris, Barangay Bel-Air, Makati City, Metro Manila
불라칸 : Lot A-2, Upper Quarry, Barangay Minuyan proper, San Jose Del Monte City, Bulacan
딸락 : Sapang Kuran, Barangay Moriones, San Jose, Tarlac
Tel. +63-2-697-6076



NatureLink ORGA의 월드바자페스티벌 참여

1



캠프의 2호 사회적기업, NatureLink ORGA는 12월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월드바자페스티벌(World Bazaar Festival) 부스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월드바자페스티벌은 다양한 음식부터 잡화 판매뿐만 아니라, 공연과 게임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바자회 겸 축제로 5,000여 개의 부스가 열리는 필리핀 연말 최대의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총 126,000여 명이 방문했으며, ORGA도 부스 운영에 참여해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우리의 건강한 먹거리를 소개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있는 고객층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도 ORGA의 제품을 소개 및 확장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ORGA의 영상과 책자들을 보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 질문을 하는 고객들도 많았으며, 더불어 한복을 입어볼 수 있는 체험존을 구성해 한국 문화나 음식에 관심이 많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한국의 건강한 먹거리인 감자와 누룽지 등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월드바자페스티벌 (World Bazaar Festival)



NatureLink ORGA 부스 운영



한복 입기 체험

2

필리핀 한국NGO 네트워크 캠프 딸락 현장 방문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한국 국제개발협력 단체의 협의체인 '필리핀 한국 NGO 네트워크'의 소속 기관들이 캠프의 딸락 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본 행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필리핀 사무소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으며 김은섭 소장과 이아름 부소장, 필리핀 전국에서 활동하는 10여개 단체와 활동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본 행사는 캠프의 사회연대경제 사업 보고와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토론, 협의체의 정기총회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캠프의 사업지인 딸락 농장을 방문해 직접 친환경 자연 양계의 현장과 벼·옥수수·콩 농사가 진행되는 현장을 둘러보고 쌀 도정센터에서 도정 체험도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국제개발협력 단체들의 파트너십과 KOICA 필리핀 사무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힘을 얻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필리핀 한국NGO 네트워크 단체사진



딸락 도정센터 방문



딸락 현장 방문

02



캠프에서 사랑을 키운 주다운, 이재광 부부

* 본 인터뷰는 2022년 7월, 캠프 사무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前 이재광 단원



CAMP :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주다운 :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타워빌에서 13개월 정도 프로젝트 매니저로 캠프와 함께했던 주다운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송리단길 쪽에 작은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이재광 : 저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KCOC 봉사단원으로, 2019년에는 광주 베엘교회 청년부 비전트립 인솔자로 타워빌에 방문했습니다. 캠프에서의 경험들이 개인적으로 삶의 방향을 많이 바꾸었는데요, 목사에서 목수로, 지금은 활동가로서 꿈꾸게 된 이재광입니다.

CAMP : 캠프가 두 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주다운 : 저는 캠프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방향성'을 배웠습니다. 캠프가 1년 9개월의 지역 조사를 거쳐 기반을 탄탄히 하고,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끌어냈기 때문에 캠프의 1호 사회적기업, 익팅이 성공적인 자립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캠프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방법과 방향성을 저의 삶에도 적용해서, 무엇을 할 때 왜 이것을 하는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계획을 세우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재광 : 캠프는 저의 삶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단원으로 활동했던 당시 신학을 배우던 저에게 모든 것이 지역에서 시작하고, 지역의 필요에 맞추어 활동하는 캠프의 사업 방식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매료된 신학 용어 중 '주변성(Maginary)'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캠프가 지역 단위에서 시작해서 작은 곳에서 필요에 맞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이 개념과 접점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활동하는 호남지역의 농촌으로 돌아가 지역에 필요한 활동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CAMP : 캠프를 통해 소고로교회에 기부를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주다운 : 저희가 캠프를 통해 맺은 인연이기도 하고, 의미 있는 기부를 하고 싶어서 캠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을 때, 개인적으로 힘들고 고단했다면 캠프가 열심히, 또 사업을 잘 이끌어 가는 방식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후원을 이곳에 하는게 낫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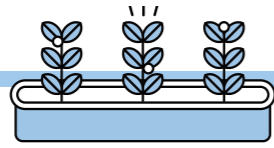
이재광 : 물론 소고로교회와의 인연도 있습니다. 2017년 단원이었을 때도, 2018년 개인적으로 타워빌에 방문했을 때도 소고로교회와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캠프의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한다는 것이 차별화되는 강점이라고 생각했고, 캠프를 계속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싶었습니다.

CAMP : 2023년의 캠프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나! 개인적인 생각들을 자유롭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다운 : 캠프 사업들의 방법이나 방향성이나 미래에 대한 것들이, 다른 NGO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으면 합니다. 캠프가 지역 하나를 조직하고, 살리고, 주민들을 꾸리는 것, 그 방식이 널리 이롭게 퍼져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재광 : 현재는 캠프가 불라칸, 딸락, 마닐라 세 사업장으로 규모가 커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과 관련된 소통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조직 안에서 서로를 끈끈히 연결할 수 있는 연결지점이 생기면 캠프가 더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前 주다운 간사



자립마을 만들기, 하나님의 공동체 만들기

'캠프, 물음에 답하다'는 제 3의 시선으로 캠프에 관해 묻고 답하는 문답형 에세이로, 캠프의 가치와 비전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1 타워빌의 해체된 가정을 하나님의 온전한 가정으로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노는 아이들, 태풍과 재해, 정부의 도시개발정책으로 타워빌까지 떠밀려온 도시빈민들, 삶의 터전이 무너진 이들은 캠프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었습니다.

캠프는 '가난을 벗어나 함께 건강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마을 한가운데 우뚝 세우기 위해 타워빌 산꼭대기로 들어갔습니다.

첫 사역지 타워빌에는 일자리를 위해 마닐라로 떠난 남성 가장들을 대신해 생계유지와 자녀양육을 함께 책임진 나나이(필리핀어로 어머니를 뜻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봉제 직업교육을 시작했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기업 익팅(igtting)봉제 센터를 시작했습니다.

11년이 지난 현재, 나나이들은 집안의 기둥이 되었고, 봉제센터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마을을 위해 스스로 도와가며 살고 있습니다.

2 울고 웃으며 만들어간 '캠프 가족'

필리핀 현장에서 활동하는 캠프의 사역자들은 봉제센터 멤버들을 '나나이'라고 부릅니다. 나나이들은 힘차게 출근인사를 하며, 재봉틀을 돌리느라 빠르던 어깨를 풀어줄 줌바 댄스로 아침을 엮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있었지만, 나나이들은 일상을 함께할 동료들이 있고 일자리가 있음에 늘 감사합니다. 부활절, 성탄절과 같은 기념일에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한국 사역자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나눕니다. 새로운 동료를 맞이하여 봉제교육을 전수하고, 패션쇼를 기획하고 스스로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국적, 나이, 성별과 관계없이 함께 섬기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캠프 가족'이 되었습니다.

3 서로에게 소망이 되어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필리핀 전국이 봉쇄되자 지역주민들은 외부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익팅 봉제센터는 마스크 생산기지가 되어 전국 배송을 담당했고, 캠프는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팬트리(식품저장소)를 통해 식료품을 제공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선 그곳에서 캠프의 2호 사회적기업, 네이처링크 올라(NatureLink ORGA)의 배송차량은 움직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너진 삶 속에 찾아오셔서 온전한 삶으로 회복시켜주시는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캠프는 '가난을 벗어나 함께 건강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날을 위해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났느니라"
(잠언 17:17)



"전도와 다음세대 양육에 힘쓰는, 상신교회"



상신교회 소개

3300-S11의 비전으로 천국을 닦아가는 공동체

상신교회는 1970년도에 세워져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천국을 이루는 좋은 교회'라는 비전으로 천국을 이루어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상신교회는 3300-S11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3000'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사도들의 복음 전파에 삼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를 말합니다. '300'은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때 함께 싸운 삼백 명의 용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용사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11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양육한 것과 같이 11명의 제자와 그들을 세우는 한 명의 리더로, 상호 돌봄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말씀에 응답하고 이웃의 필요를 돕는 상신교회

2006년에 개소한 가평군 백둔리의 상신노인전문요양원은 상신교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법인 시설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웃사랑과 선교의 목적을 실천합니다. 요양원에서는 전담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분들의 보살핌 속에 인지, 게임, 치매 예방, 미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간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목회자가 원장으로 섬기며 매일 예배를 드리고 전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잘 섬기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위원회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22:39)"는 말씀에 따라 많은 성도들과 이웃사랑 헌금으로 이웃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절기와 계절마다 사랑의 쌀 나누기, 선풍기 나누기, 이불 나누기 등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이웃들의 필요를 돕고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전하는 캠프를 향한 상신교회의 응원

캠프와는 이철용 대표님께서 캠프 이전부터 하시던 사역을 함께하며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캠프와 오랫동안 함께하며 참으로 귀중한 사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 캠프의 사역지를 방문하며 많은 감동을 받았고, 타워빌 사역에 동참하며 힘을 보탤 수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사역지에 단기선교로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캠프를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시는 이철용 대표님과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캠프 뉴스레터 독자 여러분, 캠프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늘 함께 응원해 주시어 이 사역들이 힘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 서은성 위임목사





이철용 대표가 전하는 포도에세이



글·사진: 이철용 목사



▲ 딸락 지역 농민들과 생산한 '올가 좋은 쌀'



▲ 딸락 도정센터의 아침 도정 풍경

이번에 추수한 쌀을 캠프의 식구들과 캠프를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려 합니다.

올해는 2-3배 치솟은 비료 값과 기름 값으로 인해 벼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캠프는 우직하게 지역민들과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제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햇볕에 나락을 말립니다. 땀의 결실들을 도정하고 건강한 쌀을 이웃들과 나누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캠프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농민들의 자립의 꿈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어갑니다.

이른 아침 밀린 도정을 진행합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작동에 문제가 있었던 도정기도 이제는 자리를 잡아 중단하는 일 없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도정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움직이듯 희망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른 새벽 눈을 뜨고 이 곳에서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가고 가난한 이웃들을 지탱하는 모퉁이들이 될 수 있도록 첫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 투묘에 참여하는 마뭇 지역 농민들



필리핀국립대학교에서 진행된 '아시아기독교생명농업포럼'의 참가자들이 캠프의 딸락 사역지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참가자들은 대부분 한국 농촌에서 유기농업과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신데,

3년마다 아시아 각국을 돌아가며 생명농업을 일구시는 전설과 같은 분들입니다.

한국의 농부들이 열린 마음으로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살리는 친환경 농업을 위해 투묘와 우렁이농법의 현장 적용에 대한 지혜도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만남이 아시안으로 함께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